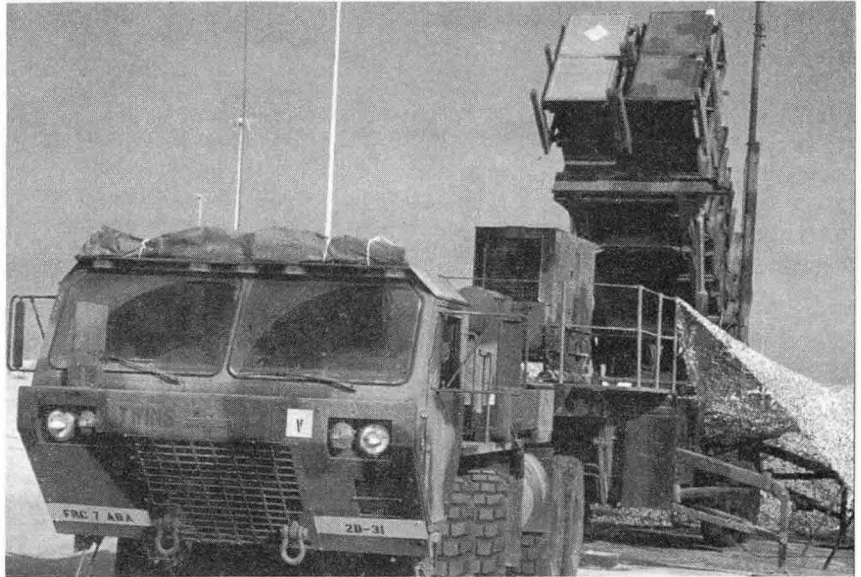


걸프(Gulf) 전쟁 발발과 주목받는 방위산업

이번 걸프전쟁은 최첨단 장비가 모두 동원된 하이테크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의 다국적군 기지로 발사된 유도탄을 요격하여, 공중폭발시키는 패트리엇(patriot) 유도탄 방어시스템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문상담이 꼬리를 물고 있다



미국 과 걸프(Gulf)灣 배치 다국적군이 1월 17일 새벽 2시 30분(우리시간 17일 오전 8시 30분)에 F-15E기를 비롯한 수백대의 공군기를 동원하여, 이라크와 쿠웨이트 전역에 산재한 이라크의 주요 군사목표물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기습공격을 단행함으로써,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축출하기 위한 걸프만 전쟁(“사막의 폭풍” 작전)이 발발되었다.

미국의 43만명과 영국, 프랑스, 사우디, 시리아, 이집트 등의 25만명 등 총 68만명의 다국적군이 참전한 가운데 開戰된 이번 걸프전쟁은 최첨단 장비가 모두 동원된 하이테크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걸프전쟁에서 비교적 생소한 미국의 최신무기들이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자, 이들 신무기를 개발한 방위산업체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량 주문이 각국으로부터 쇄도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지에 따르면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 초기단계에서, 그동안 성능이 의문시 된채 엄청난 경비만 들이는데 아니냐는

눈총마저 받던 토마호크 순항 유도탄과 F-117A 스텔스 전투기, 페이브웨이 III 레이저 유도탄 등이 예상밖의 훌륭한 성능과 戰果를 올렸고, 역시 성능을 알수 없었던 패트리엇 유도탄 방어시스템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제어하자, 이들 신형무기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이나 사우디로 발사된 스커드 유도탄을 요격하여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패트리엇(patriot) 유도탄 시스템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며, 영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문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레이세온(Raytheon)사가 일약 세계적인 방산업체로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주문은 우리나라의 방산업체에도 쏠리고 있다. 1월 14일 도착한 우리의 국군의료지원단 선발대가 우리 교민들에게 국산방독면 2천여개를 나누어 준바 있는데, 각종 방독면을 접해본 사우디 국민들이 국산의 품질을 단연 “랭킹 1위”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